

개화기 문학에 미친 기독교 영향

김 권 호*

◇ 목 차 ◇

- I. 서 론
- II. 근대화 문제
 - 1) 근대화와 기독교
 - 2) 개화기 문학의 성격
 - 3) 개화기 문학과 기독교
- III. 개화기 문학과 성서번역
- IV. 개화기 시가와 찬송가
 - 1) 창가와 기독교 사상
 - 2) 창가의 시형과 찬송가
 - ① 시의 형태면에서
 - ② 시의 율격면에서
 - 3) 신체시와 찬송가
- V. 결 론

I. 서 론

개화기를 어디서 부터 잡느냐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대체로 갑오경장(1894, 고종31) 이후부터 한일합방 전후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있는 듯하다.¹⁾ 이렇게 볼 때 기독교의 한국 전래도 그 시기를 꼭 집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1884년으로 보는 듯하다.²⁾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기독교의 이 땅에 전래는 약 10여년 앞서고 있음

* 부교수, 국문학 전공

- 1) 한국 문학사에서 어느 시기를 근대의 기점으로 설정할 것인가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임진왜란(1592) 이후부터를 근대로 보려는 이들도 있고 병자수호조약으로 인한 개항(1876) 이후부터를 근대로 보려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학사자들은 그 기점을 갑오경장 이후로 잡고 있다.
- 2) 기독교 전래 기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관해서는 이용찬, 백홍준, 이성하, 김진기(김양선, 한국기독교사연구, 서울; 기독교문사, 1980, p. 50) 등이 MacIntyre 목사에게 세례를 받은 1876년부터 잡아야 한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기독교 사상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여 보편화한 시기가 본 논문에서 더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 1884년설을 따른다.

을 알 수 있다.

이 땅에 개화의 물결이 외부의 충격과 내부의 소인으로 마련되었다고 볼 때 기독교가 하나의 외부의 충격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 땅에 있어서의 개화를 촉진시켰을 것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관(史觀)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다. 사물과 현상을 관찰하고 판단함에 있어서 그 관찰과 판단하는 사람의 주관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한 엄정하고 공평무사한 객관적 관찰과 판단이란 실제로는 있을 수가 없다. 즉 평자의 관점이 필연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본 논문도 필자의 이러한 의도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개화기의 문학은 기독교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쓰여지게 되었다.

사실 문학과 종교는 서로 먼 거리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문학은 언뜻 개인적인 문제에 한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문학의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학은 선과 악, 미와 추에 대한 날카로운 판단력을 지니게 하며 독특한 표현으로 진리에 접근하게 하는, 즉 이 세계를 참으로 좋은 세계로 창조해 가게하는 노력으로 불후의 작품을 남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이란 것도 간단히 말해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의 태도이기 때문이다.

마튜 아놀드가 “시는 인생의 비평이다”라고 한 것이나 프레드릭 로브트슨이 “종교는 시요, 시는 종교에 이르는 도중의 집이다”라는 말이나 포사이드의 “무릇 참다운 시는 그 가운데 기독교적인 것을 지니며 또 모든 참된 기독교는 일종의 시적인 것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나 에이모스 와일더는 “동질이 것이 아니더라도 시적 체험과 종교적 체험은 깊고도 밀접히 서로 연관되어 있다. 종교는 그 표현의 과정에서 시를 필요로 한다”고 한 것은 다 서로 깊은 맥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엘리엇의 “문에 비평은 일정한 윤리적, 신학적 관점에서 비평하지 않으면 완전할 수 없다”는 말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기독교는 어떤 형상으로든지 만들어 섬긴다는 것은 계율로써 금지되었기 때문에 조형예술을 발달 시킬 수 없었다. 이것은 다른 종교가 예술 전반에 골고루 발전시킨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자연적으로 예술적 충동은 음악과 시로 그 출구를 찾게 되었다. 음악도 그 속에 시를 담고 있어서 기독교는 거의 문학 하나만을 발전시켰으며 성서는 문학중의 문학으로 탄생되었다. 이렇듯 기독교 신앙은 문학의 옷을 입고 문학의 분위기를 마시면서 자란 것이다.³⁾

이렇듯 기독교는 문학 예술의 한 형태만을 발전시킨 종교로서 한국개화기 문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은 사실이다. 그 동안 한국 문학에 대한 기독교 영향의 연구는 거

3) 김주연 편, 현대문학과 기독교(문학과 지성사; 서울, 1984), pp. 19~20.

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기독교와의 영향관계에서 미비한 하나의 일고에 불과하지만 하나의 시도로써 개화기 문학에서의 문체, 형식, 사상면에서 기독교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근대화 문제

1) 근대화와 기독교

문학이란 언어의 형상을 통해 표현하는 것임에는 말할 것도 없다. 그 표현은 작가의 정신이며 그 정신은 작가의 생활에서 나오며 또 그 생활의 모태는 작가의 그 시대 그 사회이다. 그러므로 결국은 작품이란 작가의 시대와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탄생되는 것이다. 즉 문학적 배경은 바로 작가의 시대와 사회이다. 그러므로 근대적 문학작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작가의 근대적 정신에 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 있어서 근대화는 대개 갑오경장에서 부터라는 공통된 사학자들의 견해를 받아드려 문학 연구자나 비평가들도 우리나라 문학의 근대화 출발점을 갑오경장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서구에서의 근대화 작업은 시민계급의 출현과 더불어 자율성에서 이루어진 반면에 우리는 타율적인 것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갑오경장은 우리나라의 근대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시민 계급을 이룩하는데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가 없었다. 타율적이란 말은 곧 타문화로서의 서구 문화의 개입을 뜻한다. 이처럼 근대적 문학의 출발이 우리 고대 문학의 계승에서 온 것이 아니고 서양적인 문학의 형태를 밟은 데서 부터 시작하였으므로 그것은 서양적인 근대성이 사회적으로 조성된 데서 부터 되었으리라는 것은 수긍할 수 있는 논리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근대화 성격은 서구적인 지성에서 비롯하였던 것이며 그것은 한국의 고유한 지성이 아니었다. 또한 유교, 불교, 도교는 과거 천여년 동안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지배하여 왔을 지라도 우리 생활속에 너무나 익숙하여져서 새로운 감각을 전혀 주지 못하였고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도 없는 진부한 것이었다.

이러한 동양문화의 사상으로는 한국 근대화의 선도자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즉 한국의 근대화란 한국의 고유한 지성도 아니었고 동양적인 지성도 아닌 서구적인 지성의 힘으로 변혁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새로운 서구의 지성은 이미 이조 말엽 당시의 고루한 사회를 점진적으로 근대화로 이끌어 갈 기독교의 선교 운동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기독교 선교 정책은 자립적인 서민층, 중산층들이 관심의 대상이었고 네비어스 선교법(Nevius Method)에 이론적 근거를 두었다. 네비어스 선교법의

기본적인 것은 자급전도(Self-Propagation), 자치(Self-government), 자립(Self-Support)이다. 말하자면 교회의 자치제도를 강조하되 그것만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의 독립 자주적인 신앙, 경제적 자립과 독립을 내세우게 되었고 이는 한국의 근대화에 연결되었던 것이다.⁴⁾

또한 H.G.Allen, H.G.Underwood, H.G.Appenzeller, W.B.Scranton 등의 선교사들의 복음 선교의 한 방편으로 교육, 의료, 사회 사업 및 신문 발간에 주력하여 근대화로의 사회적 기틀을 조성한 정신력이 되었던 것이다. 새 문학, 새 기술, 새 교육 제도 등은 기독교 선교의 목적으로 이땅에 들어오게 되었으나 기독교 본래의 목적을 훨씬 벗어나 한국문화와 사회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변모시키는 일을 했던 것이다.⁵⁾

즉 전통적인 유교적인 사교체제에 새로운 인간관이 형성되어 자아의 인식에까지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이다.

춘원 이광수는 이 사실을 지적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야소교회는 실로 흑암하던 조선에 신문명의 서광을 전하여 준 최초의 은인이며 겸하여 최대한 은인이요, 조선의 최선각자라고 하는 정약용씨등이 남 먼저 신문명을 이해한 것은 천주교 때문이다. 만일 대원군이攘夷가 없고 야소교가 자유로 弘通되었던들 조선은 30여년 전에 속히 신문명의 세례를 받았을 것이고 금일에는 이미 다대한 진보가 있었을 것이외다.

아무려나 조선에 신문명의 서광을 준 자가 야소교회라 함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외이다.”라고 밝히고 다음 8개 항목에 걸쳐 기독교의 근대화 의의를 밝히고 있다. “그 취지의 제 1은 서양사정을 알게 했고 제 2는 도덕생활의 진흥으로 이상있는 생활을 추구케 했다. 제 3은 교육의 보급으로 8년전까지만 해도 학교라하면 기독교 학교밖에 없었다.…… 제 6은 국문의 보급으로 한국어의 진가를 알게 하였다. 제 7은 사상에 대한 것을 자극하였다. 제 8은 개성이 자각과 개인의식을 촉구하였다.”⁶⁾

어쨌든 기독교가 한국의 근대적 시민 사회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기독교가 이 땅의 근대문화 형성에 이바지한 점을 든다면 첫째로 천주교 전래때에 이미 시작되었던 서양 세계로 향하는 시야를 확대시켜 주었고 둘째는 유교적 도덕율에 대한 저항과 붕괴 작업의 유발, 즉 봉건적인 생활양식을 지양하고 서구 문화의 맥락을 지어 줌으로써 현대적인 과정으로 유발시켰으며 세째로 평등의 기회를 줌으로써 가정과 사회의 생활 질서에 변동을 가져왔고 민주주의의 자각을 갖게 했다.”⁷⁾

4) 박안진, 한국교회사(김주연편, 현대문학과 기독교, pp. 43~44).
5) 김주연 편, 상계서, p. 29.
6) 이광수, 야소교의 조선에 준 은혜, 청춘우호 1917. 7(기회보, 한국문학과 기독교, p. 349).
7) 김희보, 상계서, pp. 60~61.

2) 개화기 문학의 성격

한국 문학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 고전시대에서 현대 문학시대로 바뀌는 과도기(1980~1920)를 흔히 개화기라 한다. 이 개화기의 공통된 시대 정신은 자주 독립정신과 사회 비판의식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시대 사조를 감격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문학 양식으로 등장한 것이 신소설이며 새로운 시가 형식이었던 것이다.

장구한 기간에 걸쳐서 제 1의 강문화(強文化)인 타문화로서의 중화문화가 우리에게 제 2의 자문화(自文化)가 되어있는 상태에 제 2의 강문화로서 서구 문화가 실질적으로 침입하면서 한 민족의 문화의식을 변혁 시키려는 방향으로 놓게 한 것이 문화성에서 볼 때 갑오경장이라고 할 수 있다.

예의식에서 보면 갑오경장은 중화의 예의식이 물러가고 서구의 예의식이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의 전환점이다.⁸⁾

국문학에서 구소설이라고 할 때 주로 조선조 한글로 되어 있는 소설문학을 말한다. 조선조에서 한글 문학은 그 자체가 이미 양반문화에 저항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구소설로서 한글 소설에 나타나는 인물과 사건이 이루어 내는 劇性은 양반 문화에 저항한다. 그러나 구소설은 문예사조의 배경을 전체로 할 때 중화적 문화관이 주종이던 시대의 반응으로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구소설은 조선조의 양반문화에 저항하되 중화적 문화관을 벗어날 수 없었다.

신 소설은 갑오경장부터 기미운동 이전까지의 20여년 내외에 나타났던 한글 소설을 말한다. 갑오경장을 문화성의 측면에서 볼 때 조선조 양반 문화가 부정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조선에 있어서의 강문화로서의 중화문화가 퇴조함을 뜻하기도 한다.⁹⁾

그러나 두개의 강문화가 모순의 관계로 공존해야 했었다. 문예사조의 측면에서 볼 때 중화적인 것이 강력하고 서구적인 것은 극히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문예관의 배경에서 신소설은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문화성의 차원에서 문예 사조를 중심으로 고려할 때 구소설의 “구”는 중화적인 요소가 군림했던 소설임을 나타내며 신소설의 “신”은 중화적인 문예 사조가 극히 미약했던 서구적 문예 사조가 모순 관계로 공존했던 소설임을 말하며 현대소설의 “현대”는 그 모순의 공존 관계가 파괴되어 중화적 문화 사조는 퇴조하고 서구적 문예 사조에 치우쳐버린 소설임을 알게된다.¹⁰⁾

신소설의 작가 정신은 예술성에서 보면 서구적 측면이 있다고 하기에는 미약한 편이다. 그러나 논리와 도덕의 측면에서 보면 조선조의 인륜 법도를 벗어나려는 경향을 보

8) 신동욱 편, 신문학과 시대의식(새문사; 서울 1981), p. 102.
9) 상계서, pp. 99~100.
10) 상계서, p. 100.

이다. 이러한 경향은 서구적 영향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삶의 내용을 서구적으로 소망하려는 반면에 그 내용을 표현하려는 형식을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신소설의 작가 정신을 접하게 된다.¹¹⁾

그러므로 신소설에는 전래의 문학과는 달리 외국인이 많이 등장하여 한국인들에 그들은+모델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는 당대의 작품이 서로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재선, 김학동, 박종천씨 등의 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¹²⁾

작품명	외국인명/직업	국적	어떤 일을 하는가	평 가
一 捻紅	일본인 순사 공사	일본	홍량의 피습을 막아줌 이량의 유학 주선	+(협조자)
血 의 淚	井上 군의관	일본	옥련을 치료하고 양녀로 입양시 킨다.	+(협조자)
九 疑 山	藤井壽太郎	일본	난파 조난된 오복과 칠성을 구해 준다.	+(협조자)
雨 中 行 人	古賀太郎	일본	일본이 입국한 차옥을 고용, 공 부하게 도움	+(협조자)
巢 鶴 嶺	(홍평자) 의 상인	중국	한국인 강위영을 납치, 돈을 약 탈함	-(가해자)
秋 月 色	a. 스미트	영국	고아가 된 영창을 영국에 유학	+(협조자)
	b. 왕씨 (마적두목)	중국	영창부부 납치 그러나 부친을 만 나게 함	-(납치결과 적인 협조자)
능 라 도	화자(기생)	일본	남정린의 자살을 막고 돕는다.	+(협조자)
雪 中 梅 花	국미차랑	일본	투신한 옥회를 일본으로 데려가 공부시킴	+(협조자)
銀 世 界	순경 갈래배루 시, 기아니쓰	미국	학비때문에 자결하려는 옥순, 옥 남을 도움	+(협조자)
貨 水 盆	마적 대안왕과 그 무리	중국	한국인 납치, 박진사도 납치 당 함	-(가해자)
菊 의 香	목 사	일본	이현섭이 목사의 도움으로 공부, 사위삼음, 국회의 파혼	협조자도 가해 자도 아님
눈 물	구세군 마야 大 佐	서양인	악인 평양집을 구출, 감화 선인 이 되게 함	+(협조자)
水 溢 瀧	탐 정	일본	계모 한씨가 한성기와 공모, 뱃 속에서 창길을 물에 밀어넣자 구 출	+(협조자)

한국의 20세기 소설은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소설 양식과 서구 소설의 영향이 교차되는 시점에서 발아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교육, 성경번역 및 보급, 찬송가 번역, 선교사에 의한 국어연구, 국자 사용의 확산, 초기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에 의한 신문 잡지등 저널리즘의 발전, 자국어에 대한 자각등은 새로운 문학 작품의 창작 및 광범위한 새로운 독자층 확대에 직접, 간접으로 촉진제의 구실을 했던 것이다.

11) 상계서, p. 102.

12) 이재선, 김학동, 박종천 공저(형설출판사; 서울, 1982), p. 34.

우리의 새로운 근대적 문학작품의 형태는 누구나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듯이 고대 문학 작품의 형태와는 전연 다른 장르에 속해 있는 것이다.

그것은 형식면에서만 그런것이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현저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많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듯이 고대문학이 동양적인데 반하여 근대적인 새로운 문학은 서양적이라는데 그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역설로 말하면 서양적인 우리의 근대적 작품이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의 사회적 기초가 서양적인 사회적 기반위에서 이루어졌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3) 개화기 문학과 기독교

흔히 문학작품의 중요 원천으로 손꼽혀지는 것들은 정치, 경제, 사회제도, 교육, 문화 및 그 사회를 지배하는 습속과 종교등이다. 이런 사실을 감안해 볼 때 한국 근대문학의 역사에서 중요 원천으로 생각되는 것은 교육을 들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 근대적인 의미의 교육이 본격화된 것은 19세기 말경 부터이다. 이 무렵 우리 주변에는 일부 유지들과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 서구식 교육을 지향하는 신식 학당들이 창설되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서구의 선진 과학문명을 습득코자 하는 열망이 팽배해 있었던 것이다.

또한 거기서는 국한문 혼용과 구어체 문장이 학습 내용에 포함됨으로써 재래의 서당식 교육과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랐다. 이와 같은 언어 교양의 차이가 한국 근대문학 형성 전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리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학의 원천에는 종교가 있다. 본래 한 사회를 지배하는 종교는 작품들의 주제라든가 내용에 영향을 끼치고 문체와 형태까지를 결정케 한다. 한편 한국 근대화 문학의 초창기의 경우 일종의 종교적 전환 현상이 빚어졌다. 개항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우리 사회에서 주류를 형성해온 종교는 대충 두가지였다. 그 하나는 유교였고 다른 하나는 불교였다. 그런데 이들 두 종교는 그 무렵에 이르러 일종의 타성에 젖은 느낌이었다. 그리하여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 전개를 위해 활력소가 되었다기 보다는 일종의 역기능으로 작용한 김새가 나타난다. 가령 불교는 그 근본 교리를 해탈, 현세적인 것의 부정쪽에 두고 있다. 그리하여 그것은 현실지향의 단면을 강하게 드러내는 근대시민 의식과는 상당히 상충되는 면을 지녔던 것이다. 유교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립된다. 유교 특히 그 가운데도 주자학인 이데올로기가 조선왕조의 지배 이념에서 뼈대가 된 사실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다. 그러나, 그 지배 이념은 오랫동안 정치와 사회적인 문제에 비판없이 적용되어 왔다. 그리하여 조선왕조 중기 이후에 이르자 역사의 새 국면을 타개하고 활력소로서의 의의가 퇴색되어 있었다.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 전개에 힘이 된 종교는 개항 당시 그 포교의 역사가 일천한 기독교였다. 우선 기독교는 18세기 중반기 경에 이 땅에 전해진 서구의 종교였다. 기독교는 포교 초기에 다분히 미래지향, 내세에 교의의 중점을 둔 종교로 생각되어 왔다. 이와같은 기독교의 특징적 단면은 한국 근대문학에 끼친 영향을 살피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기독교가 우리 근대문학에 끼친 영향은 기법에 속하는 것들 즉 그것은 주로 말씨라든가 문체, 형태 등을 통해서 포착되어지며¹³⁾ 성서의 번역에서 비롯한 국문사용의 존엄성은 형식면에서 국문위주의 생활 혁명을 일으켰으니 신문의 표기가 바로 그것이었으며 내용면에서는 1882년 이때의 신교의 선교는 우리 선인들의 정신 생활을 혁신한 점에 있어 근대적 사회의 성격을 마련하고 촉진화 시켰다고 볼 수 있으며 문화의지로서 근대 정신의 자각이라 할 수 있다.

III. 개화기 문학과 성서번역

번역은 제 2의 창작이라고 할진대 성서의 번역은 우리 문학사에 빼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새로운 문학사의 출발은 저1882년에서 부터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한국의 신문학의 출발은 성서의 번역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 한국 신문학의 배경은 기독교의 전래에서 부터라고 할 수 밖에 없다.¹⁴⁾

성서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유입되었을 때 그것은 무엇 보다도 한글을 보급시켰다는 점에서 신문화 운동에 기여한 바 공적이 다대했다는 것은 이미 세상이 공인하는 사실이다.

백철씨는 “우리나라 근대적 신문학이 처음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는가를 생각할때 먼저 다음과 같은 사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 신문학은 자기의 과거에 대한 반응과 극복으로 되어진 자연발생적 진출이 아니고 밖에서 들어온 근대문학적 성격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더 주세력으로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에 근대적 신문학이 생성한 처음 과정은 창작적 작품행동이 오기 전에 먼저 외국작품을 그대로 옮겨 보는 행동이 선행한 순서로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즉 신문학이 처음으로 올때 구체적 작품양식을 시와 소설의 두가지 면에서 고찰하게 되는데 이 시와 소설의 두 가지가 다 처음에는 외국의 것을 번역하는 형식으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와 소설의 처음 형태를 살펴보면 시는 창가의 형식으로 소설은 신소설이란 이름으로 등장했다고 보겠으며 그 창가와 신소설이 처음부터 우리 창의로 된 것

13) 김용직, 한국근대시사(새문사; 서울, 1983), pp. 45~51.

14) 김영덕, 한국 근대적 문학배경과 기독교, (이화여대 80주년 논문집), p. 40.

이 아니고 외국의 것을 먼저 번역을 해서 시험해 보는 과정이 성행했다는 사실이다.”¹⁵⁾

광무 2년 즉 1898년에 안동서관(滌東西館) 발행의 철세계(鐵世界)라는 소설이 李海朝의 역술로 나왔다.

철세계는 현재 우리 눈에 띄는 역자 중 첫번의 것이다. 그러나 이런 번역하는 행위는 훨씬전에 시작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광범한 의미에서 성경과 찬송가도 유럽 문학이라 본다면 성경과 찬송가도 처음 우리 말로 번역된 것은 1882년이라 하지만 늦게 잡아도 배재학당, 이화학당의 교사들의 기록으로 보더라도 벌써 1887년 무렵에 되어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데 그 밖에도 직접 문학적인 작품으로 번연(Bunyan Jhon)의 유명한 “천로역정”이 우리말로 되어진 것이 1895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 신문학이 창가나 신소설의 형식으로 나오기 전에 일종의 번역 행위가 앞서서 그 직접 준비의 과정으로 선행한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¹⁶⁾

우리나라에서 성서 유입의 과정을 대략 보면 1816년에 한문본 성서가 우리나라에 처음 왔고 그후 1832년에 네델란드선교사 구즐라프를 통해 한국에 소개된 일이 있다. 그리고 1865년에는 토마스 목사가 황해도 해안에 와서 한문본 성서를 전파하였고 그는 대동강을 따라 평양 근처에서 순교하는 순간까지 성서를 전파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에서 한문 성서를 가져다 준 것으로서 성경 접촉사 정도의 의의는 있어도 문학 사적으로는 별반 의의가 없다.

따라서 문학사적으로 의의를 갖는 것은 1882년에 간행된 국문판 성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만주의 우장에 주둔하고 있던 스코틀랜드 연합장교의 선교사 존·로스(Jhon Ross)와 존·맥킨타이어(Jhon MacIntyre) 그리고 로스 목사의 어학선생인 이응찬(李應贊)과 그의 친구들인 이성하(李成夏), 백홍준(白鴻俊), 김진기(金鎭基)등이 합동하여 1875년에 착수하고 1882년에 역간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가르킨다. 이 수많은 나관을 극복하고 간행된 한글성서가 1882년 부터 국내에 들어와 전도용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 후 1883년에는 교정된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이 1884년에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각각 간행되었으며 1887년에는 “예수 성교 전서”라는 한글 신약전서 전권이 간행되었다. 이것을 로스(Ross)번역, 로스 별전(Ross Version)이라고 흔히 한다.

한편, 일본에서는 세례 받은지 두달쯤된 이수정(李樹廷)이 1883년 4월에 한문으로 된 4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이두루 토를 달았으며 미국 성서 공회는 그것을 3,000부 정도 인쇄했다고 한다. 그는 1884년에 마가복음서를 한국어로 번역했고 그 이듬해에는

15) 백철, 신문학사조사, (신구 문화사; 서울, 1980), pp. 29~31.

16) 상계서, pp. 28~30.

누가복음서를 번역했다.¹⁷⁾

1885년 언더우드(H.G. Underwood)와 아펜젤러(H.G. Appenzeller)가 일본을 경유하여 한국에 들어올 때 이수정역 쪽 복음서와 기독교 서적을 가지고 들어왔다. 성서번역 사업에 뚜렷한 공헌을 한 미국 남 장로교회 선교사 레이놀즈(W.D. Reynolds)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초기의 번역 사정에 관하여 이렇게 말한 일이 있다.

로스역과 이수정역은 원문과 한국말에 조예가 깊은 외국인의 적절한 수정이 없이 한국인 학자들만이 중국어와 일본어 성경에서 번역한 것일 수 밖에 없었다. 우리들은 언제나 이들 선구적 번역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과장된 문체이며 지나친 한문투이며 사투리 표현이며 빈번한 오역이며 괴상한 철자며 거칠은 활자등과는 초기의 선교사들로 하여금 구 번역을 고쳐 만드느라고 시간을 낭비하느니 보다 새로 번역하는 편이 더욱 낫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하였다.¹⁸⁾

이와같은 구 번역들에는 오류가 많고 문체가 졸렬하며 철자가 이상하고 한문의 고투와 지방의 사투리가 과다하여 선교사들은 성서 번역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1887년에 성서 번역 위원회를 조직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17년에 지난 1904년에 비로서 「신약전서」를 역간 했으며 구약의 완역본을 내놓는 것은 1911년이였다. 그 이래 오늘날까지 여러차례 걸쳐 개정판이 나왔다. 이처럼 수차례에 걸쳐 한글 성서가 간행 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문학사적 의의를 갖는 것은 최초의 번역이란 영광을 차지한 로스역이라 할 수 있다.

로스역과 이수정역이 비록 오류가 많고 문체가 졸렬하여 한문의 고투가 많다고 하지만 순수한 특히 서민층의 평이한 말들로 이루어진 최초의 번역으로 한국 발전에 끼친 공로는 실로 지대하다.

한편 김윤경(金允經)은 성서 번역이 한글의 가치를 높여준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들이 전도하기 위하여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여 우민남여노유(男女老幼)에게도 그 성경을 읽히기 위해 한글을 가르치며 이미 소개함 같이 학교를 곳곳에 설립하고 자녀를 모아 교육하되 종래의 유교 교육과 같이 순한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순한글로 하였습니다. 종래에는 유학에 중독되어 한문이 아니면 문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한문을 모르면 크게 부끄럽게 생각하지만은 한글을 모르는 태연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모르는 것을 자궁할 만큼 한글을 경시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배가 언제까지나 묻혀 있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침내 기독교가 그 그릇된 생각을 깨뜨리고 한글의 가치를 천명하여 광채를 세계적으로 발휘하게 함에 큰 공적을 끼친 것입니다. 교도들은 한글 모르는 이가 거의 없다 할 만큼 되었다는 사실만이라도 한글 발전에 대한 그 공헌이 얼마나 큰가 헤아릴 만한 것입니다.”¹⁹⁾

17) The Annual Report of the American Bible Society for 1885, p. 146.

18) W.D. Reynolds, The Contribution of the Bible Societies to the Christianization of Korea, The Korea Mission Field, Vol.,12, No.5 (May.1916), p. 127.

19) 김윤경, 조선문자급 어학사, (서울, 1933), pp. 564~65.

외술 최현배(崔鉉培)씨는

“유교의 경전을 공부한 한학자들이 한문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가진점과 같이 기독교의 성경을 공부한 대중이 한글에 대한 존중의 생각을 품게 됨은 또한 자연스런 심리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 있는 한글 성경책이 귀중한 것으로 인식됨과 함께 그 거룩한 내용을 나타낸 한글이 또한 귀중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수백년 동안에 언문이니 암클이니 규방문자니 하여 천대반던 한글이 이제 기독교의 교리를 적게 되므로 말미암아 일약 사서 삼경의 한자 같은 지위를 얻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성서의 한자한자가 그 내용과 함께 소중한 것으로 되어 이를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발전시켰었다. 그뿐 아니라 일제가 그 말기에 다달아서는 우리말, 우리 글을 정책적으로 아주 말살하려고 악랄한 수단을 취하였을 적에 우리의 학교에서 한글과 우리 말이 사라지고 심지어 거리와 집안에서까지 우리말 우리글이 그 자연스런 노릇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적에 오직 기독교의 교회에서만은 성경이 한글로 적히고 목사의 설교가 배달말로 유창하게 흐르고 찬송가의 가락이 배달 사람들의 정서를 그대로 전파하였으니 우리말 우리글의 수호의 공을 기독교에 인정하여야 마땅하노라.”²⁰⁾

성서의 국역이 우리의 언어생활과 문학생활에 남긴 공로는 어떠한 신의 구조 사업보다 결코 적게 평가되어질 수 없다.²¹⁾

조윤제씨는

“대체로 근세의 이 국문발달 경과를 보면 거기는 서학발전의 중대한 영향을 잇을 수 없는데 서학이 전래되자 교리를 널리 일반 대중에 보급시키기 위하여 곧 성서의 조선어 번역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고종 17년에는 벌써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번역되었고 또 고종 21년에는 미국 선교사 언드우드와 아펜젤러에 의하여 신약전서의 번역이 시작되어 동 27년에는 완역되었다. 이로 인해 기독교의 전파가 용이하였던 것은 물론이나 또 그로인해 일반 평민 대중에 신문화가 널리 보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문이 기독교에 힘입는 바가 극히 크다고 믿어지나 과거에는 공사용문(公私用文)이 한문이 아니고서는 안 될 줄만 알았던 것이 이제와서는 나아가서는 국문이 아니고는 그 능을 다 할 수 없음 조차를 알게 되었다. 이것은 문화가 일부 특수문자의 상대가 아니라 국민전체에 곧 일반대중의 상대로서 문화가 존재할 수 있고 또 존재하였기 때문에 기실 국문이 아니고는 근대적인 문화의 정신을 살릴 수 없었던 것이다.”²²⁾

1882년 이 해는 비단 한국 기독교 문학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해에 그치지 않고 한국 현대문학사의 서광을 알리는 기원의 해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 해를 기점으로 오랜 세월동안 언문이라 낮춰 일컬어지며 천대를 받던 한글에 의해 문학작품이 쓰여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성서번역을 통해 당시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종래와는 다른 문학표현 방식에 접하

20) 최현배, 한글과 문화, (외술 최현배 박사 교회기념 논문집, 1968), pp. 197~201.

21) 조연현, 한국 현대문학사, (성문각, 1968), p. 29.

22) 조윤제, 국문학사, (서울, 1959), p. 427.

게 되었다. 즉 지난날의 서적들이 거의 한문 서적이었음에 비하여 이 번역판 성서는 우리말로 기록되어 있어 친근감을 주었다. 이는 마치 라틴어를 숭상하던 중세에 과감히 토속어로 작품을 쓴 단테(Dante)의 문학을 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감회였다.

이 사실에 관하여 이광수는 다음과 같은 말로 정곡을 찌르고 있다.

“한글도 글이라는 생각을 조선인에게 준 것은 실로 야소 교회이다. 귀중한 신구약과 찬송가가 한글로 번역되어 이에 비로소 한글의 권위가 생기고 또 보급된 것이요…… 아마 조선글과 조선말이 진정한 의미로 고상한 사상을 담은 그릇이 됨은 성경 번역이 시초일 것이요 만일 후일에 조선문학이 건설된다 하면 그 문학사의 제 1항에는 신구약 번역이 기록 될 것이다.”²³⁾

당시의 성서번역 문체가 완전한 구어체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거의 구어체에 육박했다는 사실은 또 하나 특기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언문일치 운동에 있어도 선구자적인 구실을 했다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익히 알려진 대로 우리나라 최초의 언문일치 문장 短堂 兪吉澣의 <西游見聞>으로 그 효시를 삼는다. 그러나 <西游見聞>이 간행된 것이 1895년이니까 연대적으로도 성서간행은 10년이상 앞섰다는 셈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西游見聞보다 10년이상 먼저 출판된 번역 성서의 문체가 보다 더 구어체에 가깝다는 사실이다.²⁴⁾

성서 국역이 우리나라의 전근대적인 요소인 침체성을 불식하는 데 끼친 영향을 몇가지 측면에서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는 성서보급을 통해 한글을 대중화시켜 주는 동시에 성서 자체가 지니고 있는 고귀한 사상적 내용, 즉 자유, 평등, 박애, 민주주의 따위의 외래 사상을 이 땅에 유입시켜 정신적 폭을 넓혀 준 것이고, 둘째는 우리의 언어 생활과 문자 생활에 끼친 영향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오랫동안 입으로는 국어를 말하면서 글로는 한문을 쓰는 기형적인 언어생활 즉,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의 이중구조 속에서 꽤 불편한 생활을 해 왔다.²⁵⁾ 그러다가 성서가 역어로서 평이한 언문일치의 한글을 채용함으로써 문자생활과 언어생활에 일대 혁신이 일어났고 동시에 문법과 어문체계를 갖춘 국어로 발전시켜 주었던 것이다. 성서국역에 자극을 받고서 개화기 이후에 등장한 소위 신소설과 몇몇 신문들이 한글 문체를 채용한 것은 언문일치 운동의 일환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성서국역은 우리 언어의 비유성과 풍자성을 더욱 풍부하게 해 주었고 우리나라의 언해체 산문문장을 좀 더 근대적인 산문체 스타일 문장으로 발전시켜 주었다. 사물을 과장하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뜻을 강조하기 위하여 고작해야 白髮이 三千丈이니 또는 飛流直下 三千尺이니 아니면 子子孫孫, 是是非非 정도의 한문 숙어를 옮겨다 놓음으로써 표현수단으로 삼던 때에 비하면 월등한 거리를 보여 줄이만큼 구체화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그

23) 이광수, 야소교의 조선에 준 은혜, (청춘 9호, 1917).

24) 김희보, 한국문학과 기독교, (대광인쇄사; 서울, 1979), pp. 350~351.

것은 간단한 비유법의 하나를 들어 보아도 알 수 있다. 부자가 천당에 들어가기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보다도 힘들다는 식의 표현방법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일찌기 우리나라 문장표현에 있어서는 볼 수 없었던 경지다. 문장에 있어서의 과장, 반복, 대조, 직유, 은유 등 모든 면에 있어서 그 표현 기교가 구체화하게 된 것은 성서번역이 가져다 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²⁶⁾

이와같이 우리말의 사실성과 언어성 및 문학성을 더해 주었다는 점에서 성서번역이 갖는 문학사적 의의는 자못 크다 할 수 있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한글의 대중화를 통해 근대화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는 것이다.

번역 성서를 통해 한글이 널리 보급되고 순 한글로 된 책과 번역물이 발간됨으로써 자연히 일반대중은 개명과 동시에 우리말에 대한 우수성과 의의를 자각하게 되었고 한문 위주의 생활에서 국문위주의 생활 즉 근대적인 생활로 전환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한글 문화를 형성하는데 있어 성서번역이 광범위한 민중층을 동원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성을 갖는 것이니 만큼 사회를 근대적으로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함은 무근한 억설일수만은 없다. 그래서 국문학자 백철은 “말하자면 루터(Luther)는 기독교의 원리의 진리를 민중에게 알리기 위하여 성서를 독일 국민이 쓰는 일상어로 번역해 놓은 것이 뒤에 독일 근대 문학에 기여한 것과 같이 1890년대에 한글번역의 성서가 일면 신문학을 위한 문화적인 기반을 마련해 준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우선 이와 같은 간접적인 의미에서 기독교는 우리 문학의 서구화, 근대화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것이다.”²⁷⁾

이와같이 기독교에 의한 한국 근대화의 과정은 문학사적으로 볼 때 이것은 한국 근대문학이 출발할 수 있는 터전을 조성한 것이다. 번역된 한국어 성서의 산문체 문장은 마치 영국의 협정영역성서(欽定英譯聖書)(1611)가 영문학사에 있어 산문에 의한 최대 결작으로서 후에 영문학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과 같이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 「독립신문」과 번역소설과 신소설 및 이광수 초기 소설등에 영향을 많이 주었으며 찬송가의 번역은 장가 형식과 신시 형성에 또는 자유시로 이끄는 면에 있어 영향을 준 것이었다.

성서의 문장이 원래 소박 간결하므로 그것을 번역할 때 춘향전이나 구운몽의 문장처럼 구태어 허식과 수식을 많이 넣어 번역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자연 성서 문장이 가진 간결성과 사실성(寫實性)이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거기에 성서번역을 주동한 사람이 미국과 영국의 선교사들이었으므로 그들의 근대 이후 영어가 간결 소박한 근대적 스타일 문장을 사용한 그 관례대로 한국어 번역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25) 이기문, 개화기의 국문연구, (한국문화연구소, 서울대, 1970), p. 14.

26) 정한숙, 한국문학의 주변(고려대학교 출판부, 서울, 1978), p. 157.

27) 백철, 기독교와 한국의 현대소설(동서문화, 창간호, 계명대학, 동서 문화연구소, 1967), p. 9.

러므로 Ross역 성서의 문장은 성서가 원래 지니고 있는 간결한 사실성의 문체가 되었고 게다가 근대적 감각을 가진 영어의 관례를 많이 본받아 결국 우리나라 언해체 산문 문장을 좀 더 근대적인 산문체 스타일의 문장으로 발전하게 된 연유가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성서의 간결하고 사실적인 문장은 근대 서구 각 나라의 언어를 근대화하는데 절대적인 은인이 된 것은 각 나라의 언어학사나 문학사가 말하여 주는 바이지만 근대 이후 금일에 이를 수록 사회는 점점 복잡다단하여져서 그러한 인생생활을 표현하기에는 옛날 중세때의 허식과 수사가 많은 표현술로서는 감당할 수 없어 자연 간결 소박 솔직한 문장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여기에 원래 간결 소박 솔직한 문장이었던 성서의 산문체의 모태가 되어 서구 각 나라의 문장을 근대화하는데 최대의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올수록 문장은 더욱 간결해지고 솔직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근대화 문장이 서구에 있어서는 문예 부흥을 계기로 하여 현실의 구체적인 역사적 사회적 여러 계기에서 제기되어 성서의 각 국어 번역은 우선 각 국어에 의한 국민문학 수립이라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다시 말하면 각 나라 국민문학의 대두는 그들 국어에 의한 문학 형식의 완성서이라는 형식 문제에서 출발하였으며 그 형식 문제는 성서의 번역에서 구체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서구 각 나라는 중세기 동안 궁정, 귀족, 승려의 독점적인 문학이었던 라틴어를 버리고 자기들의 속어로서 표현한 문학에서 그들 국민문학의 출발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비슷하다. 우리나라 Ross역 성서번역은 역사적, 사회적 계기로 인해 재기되지 않았다 하여도 이조 시대의 귀족적인 한문이나 허식과 수식이 많은 형식적인 국어를 버리고 특수층에게 천대받고 등한시 당하던 평민의 단순 소박한 일상 용어의 표현을 계승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결국 한국의 근대적 문장의 출발점이었으며 그것은 한국의 근대적 문학의 욕구가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되었고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귀족들의 문학을 버리고 일반평민의 일상용어를 사용한 것은 과거의 문화 형태로서는 이 개화기의 현실을 극복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었으므로 이때 이 새로운 평민 의식의 문장이 얼마나 새로운 감각으로 민중에게 어필했는가를 생각할 수 있다.

당시 Ross역 성서 문장은 대단한 환영을 받았으리라고 믿는다. 그것은 이 이후에 나온 「독립신문」의 문장이라던가 가창, 신소설의 문체가 이를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하나의 예로 보면

한사람이 두아달이 있는데 그 마즈막이 아박갈오되 청컨던 아바니 산업으로써 너의 것부를 주소셔 하미이여 산업을 논아주니 옛날이 못하여 마즈막 아달이 다가지고 먼데 노닐어 거키셔 방탕하여 그 산업을 허비하여 다 모진하고 후에 그싸이 크게 기황하여 심히 군돈 하미이여 그곳 한사람의게 우집하니 밧테보니여 돛들 치는던 메기는 사람이 업스니 돛치먹는 콩작디로써 비를치우고져 하니 방야호로 뉘우쳐 갈오터 너의 아바니는 싸군이 얼티로되 그

냥 식이 남은겨시 있는데 나는 여키서 줄여 망하여 가니 너닐어 아바니게 도라가 망하기를 너려를 하날과 아바니게 어더스니 다시는 아담이 타일커르물 감당치 못하가스니 나물 싸군과 갖치 베기소서.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다.

이와같은 성서의 문장은 유치하나마 한국 근대문학 기초공사가 출발한 단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늦게 또는 느리게나마 차후에 고도한 표현 형식을 가진 문학형태를 갖도록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²⁸⁾

하나의 예로 개화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의 문장형식은 한문 냄새가 그대로 나는 과거의 문어체가 그대로 주류가 되었으며 그것은 또한 기독교인의 문장 형식만큼 구어체 문장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그들의 신앙생활에서 과거의 유교적인 타성을 버릴 수 있었고 새로운 정신에서 개화를 맞이할 수 있었으므로 그들의 문장 형식이 성서와 같은 문장형식을 따라 국문의 문장형식을 앞서서 혁신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무리 정부에서 국문사용의 가치를 인식하고 각급학교에서 국문을 주요한 과목으로 채택은 하였다고 하여도 정부의 위정자가 기독교인 아닌 이상 그들의 국문정책은 과거 유교적인 한문장 형식에서 급작스레 탈피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²⁹⁾

1907年 在日本 東京 留學生會 發行인 「大韓留學生學報」
第一號의 文章形式

大韓留學生會報 趣旨書

凡我留學生之在於 東京者 一千則多호고 五百則 多少호니 要之 何爲 六七百人이라. 則六七百人 이 自爲 一家族社會호니 以一家族社會로 不有 親睦團結之力이면 其辱留學之名義乎아 乃者 光武 十年 七月日에 行閱忠正公追弟會而 仍攝影호고 合大韓留學生호고 以情誼親密과 學識交換으로 爲目的호니 噫라 斯正의라

다음은 정부의 학부 편찬이며 1906년에 간행된 中等修身教科書의 예를 하나 들어 보겠다.

第二課 學校

學校는 一個人의 家와 如호야 教師와 學生은 卽 父兄과 子弟로 同호지라 然호나 一家에는 但 家風만 守호고 通常 文字로 表示호고 規則은 不要호되 一校에는 多數人을 集호호는 所인 故로 敎訓과 校則等의 注意호는 文字가 有호나니라

28) 김영덕, 한국 근대적 문학배경과 기독교, (이화여대 80주년 기념 논문집, 1966), pp. 22~23.
29) 상계서, p. 27.

먼저 서양 선교사의 국문사용을 본다면 성서의 번역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일취월장으로 국문을 연구하여 그 사용에 혁신적이었다. 그 연구에 대하여서는 「유몽천자 권지이서문」에

“제이권을 저술하여 성편이 되었스니 이권은 초권의 한용하는 속담으로 천자를 류취한 것보다 조금 어려움이 잇스나 이는 또한 한용하는 문자로 초권에 업는 새 글자 천자를 더 류취하였스니 심히 어려운 바는 아니오다만 어린 아해를 가르치는 법의 계제를 좃차 점점 높은 등급에 오르는 차서를 일치안케 함이로다.”

이것은 앞서 취지서보다 3년 앞섰고 수신교과서 보다는 2년 앞서서 나온 게일 박사의 유몽천자 권지이의 서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의 국문사용이 얼마나 청신하고 순하고 자유스런 문맥으로 되었는가 더욱 아래 「.」자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종래 사용하던 「.」자는 1905년에 지식영의 상소에 의해서 신정국문이 제정될 때 폐지했지만 실제로 앞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1906년 출판된 교과서에서도 「.」자는 그대로 존속해 사용하였으며 그 이후라 하더라도 오래도록 이 글자를 사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게일 박사는 신정국문 제정보다 1년이나 앞서서 「.」자의 불필요성을 깨닫고 그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시도하여 보았다는 것은 국문발상 획기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³⁰⁾

IV. 개화기 시가와 찬송가

창가와 찬송가

병자 수호조약이 체결됨으로서 개방된 문호를 통해서 외국 풍조가 몰려왔다. 그 가운데 하나가 신앙이었다. 1882년(고종19년) 미국과 수호조약이 맺어진 뒤 기독교 활동도 자유로와 기독교 찬가가 보급된 것도 당연하다.

찬송가 간행의 과정을 살펴보면 1892년에 당시의 감리교 선교사 존스(G.H. Jones)와 로드 와일러(Lovis C. Rothweiler)공편으로 된 「찬미가」가 효시일 것이다.³¹⁾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은 1895년 간행의 “찬미가”재판의 서문에 “찬미가는 한국의 교회를 위해 출판된 최초의 기독교 찬송가 집이었다. 그것은 감리교 선교부의 원조 아래 1892년에 간행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 다음에 나온것은 1894년에 출간된 언더우드(H.G. Underwood)편의 “찬양가”라 할 수 있다. 이 “찬양가” 집에는 모두 117편이 들어 있으며 음곡과 악보가 정식으로

30) 상계서, pp. 28~29.

31) 김병철, 한국근대번역 문학사연구, (을유문화사, 1975), p. 72.

함께 표기된 장로교 전용 찬송가였다. 그 후에 나온 것이 그리안리(G. Lee)와 기포드(Mrs. M.H. Gifford)여사의 공편으로 된 1895년 간행의 “찬송시”로 수록된 찬송가의 편로는 모두 54편이며 주로 북쪽에서 불리었던 것 같다. 이처럼 1890년대에 이미 세종류의 찬송가집이 출판되어 증보와 중판이 거듭되다가 1908년에 이르러 그 뒤 대단한 보급을 본, 장, 감, 양교파 간행의 “찬송가”의 초판이 나오게 되었다.³²⁾

기독교가 도래하여 교회당 안에서는 낭랑한 창가 소리가 들려왔다. 詠詩, 時調, 歌曲, 그것도 일종의 창가로 음악이라 할 수 있지만 그와는 다른 창가요 음악이었다.

창가란 무엇인가? 글자의 뜻대로 그것은 부르는 노래다. 여기서 주목할것은 그것이 부르는 노래라 해도 옛날에 많았던 시조나 가사가 아니고 서양식의 악곡에 의한 신식으로 부르는 노래였던 것이다. 말하자면 개화시대에 나온 이 창가는 우리 나라의 근대식 서양음악의 시작이요, 동시에 근대식 가사가 여기서 시작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창가의 보급이 한국 시가를 자극했고 새로운 시가의 등장을 재촉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국내에 “창가”라는 새로운 시험이 등장한 것이다. 일찌기 梁柱三은 <朝鮮 監理教會 五十年史>(1934., 6, 신동아)라는 글에서 이 방면의 소식은 다음과 같이 전해 주고 있다.

“1896년에 趙元時外 數人의 손으로 된 찬송가의 노래를 통하여 이화와 배재의 음악교수로 말미암아 서양 음악이 수입되어 조선민중이 차차 건전한 노래를 부르게 되었고……”

여기서 우리는 본시 창가가 처음에는 기독교의 찬송가에서 왔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창가의 기원을 대략 1890년대로 지정할 수 있는데 그것이 교회의 찬송가와 학교시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창가라는 이름으로 일간신문 등에 발표된 것은 그 뒤 1896년 이후의 사실이다. 1896년 4월 7일에 독립신문이 발간 되었는데 동지 5월분에 창가가 처음으로 발표 되었다.³³⁾ 그래서 창가의 직접적인 충격을 준 것은 찬송가로 판단된다.

임화는 “親詩의 先驅로서의 唱歌”라題하여 “창가는 새로 수입된 서양음악을 토대로 하여 형성된 노래다. 시조나 가사나 창곡에 토대가 된 시가곡(詩歌曲)을 몰아내고 서양음악을 수입하는 것으로서 창가는 형성되었다 할 수 있다.”³⁴⁾

창가는 바로 기독교의 찬송가에서 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기독교가 한국시에 끼친 영향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실에 관하여 미당 서정주도 “창가의 이름으로서 일컬어온 신시의 봉아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무명인들에 의해 왕성히 쓰여진

32) 조신권, 한국문학과 기독교,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3), pp. 81~82.

33) 백철, 신문학사조사, (신구문화사, 서울, 1980).

34) 개설 신문학사의 태생 9~10, 조선일보에 연재.

것은 이 갑오경장 이후의 일이고 또한 신시의 예비적 연습이라 볼수 있고 기독교의 찬송가들의 번역도 얼마큼 전에도 있긴 있었지만 양적으로 다량 번역되기 시작한 것은 개화 후 교회 건립의 흥용과 아울러였으므로써이다. 기독교의 찬송가 번역은 서양시가의 맨 처음 번역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일을 통해서도 서양적 신시적 문장 연습의 기초를 닦았던 것은 쉬이 수긍할 수 있다.³⁵⁾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우리 시가사에서 최초로 나타난 창가는 <황제탄신 경축가>이다. 이 작품은 고종 탄신을 경축하기 위해서 제작된 것이다.

황제탄신 경축가를 적어보면

1) 높으신 상주님
근비론 상주님
공홀히 보소서
이 나라 이 땅을
지켜 주옵시고
오 주여 이 나라
보우 하소서

2) 우리의 대군주 폐하
만만세 만세로다
복되신 오늘날
은혜를 누리스
만수무강케
홍야 주소서

3) 상주의 권승으로
우리의 대 군주 폐하
등극 하셨네
이 나라 이땅은
영세불멸 하겠네
대 군주 폐하여
만만세로다

4) 상주님 은혜로
오 주여 이 나라
독립 하셨네
우리들 백성은
상하반상 구별없이
오 주여 상주님
기도 하겠네

35) 서정주, 한국 현대시의 사적 개관, pp. 113~114.

5) 홀로 한 분이신
만왕의 왕이여
찬미 받으소서
상주님 경배하는
나라와 백성들
국태민안 부귀영화
블립없이 받겠네

노래를 부를때의 곡조는 합동 찬송가 468장의 것으로 그것은 바로 영국 국가의 곡조이기도 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은 그 가사 역시 영국 국가에 대비되는 부분이 있다. 여기서 잠깐 참고로 밝히면 영국 국가는

God save our gracious king
Long live our noble king
God save the king him victorious

로 되어 있다. 여기 나타나는 바와 같이 황제탄신 경축가의 “상주님”은 영국 국가의 God(神)에 그리고 “나라”가 왕에 대비 되는 것이다.

다음 이 작품에 이어 두번째 해당되는 작품으로 나온 창가가 <이국가>였다.

1. 성재신손 오백년은 우리황실이요
산고수려동반도는 우리본국일세

(후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름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2. 이국하는 열심의기 북악又치늬고
충국하는 일편단심 동회又치집혀

3. 천만인오직흔 마음 나라사랑하샤
스통공상귀천업시 직분문다하세

4. 우리나라우리황제 황천이도오샤
국민광락만만세에 태평독립하세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이들 작품에 나타나는 문맥상의 공통점이다. 우선 이들 작품에는 다 같이 기독교의 영향이 느껴진다. 정작 초기 창가의 대부분은 그 작사자가 교회에 관계한 사람들이었다. 또한 그 가창도 대체로 교회가 중심이 되어 행해졌다. 초기 창가와 기독교화의 상관관계는 그 까닭이 이런데서 연유한다.

1) 참가와 기독교 사상

Hebrew사상이 우리 인류에게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은 <절대적인 것에 대한 동경>이었다. 이것은 이지적인 회랍인들이 몰랐던 것으로 가령 이것이 남녀의 사랑으로 옮겨질때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기사도에 있어서는 군주에 대한 절대적 충성, 나라에 대해서는 애국의 사상으로 노래될 수 있었다.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무한의 동경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방면에 인간성을 무한으로 해방했던 것이다.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애국과 신앙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런 애국적 신앙이 <이국가>에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안중근과 함께 伊藤博文을 죽이려고 헌 禹連俊(本名 德淳) 詩에서³⁶⁾

앉을 때나 섰을 때나
양천하고 기도하기를
살피소서 살피소서
주예수여 살피소서
.....
東半島의 대제국을
내원대로 구하소서
嗚呼 간악한 老賊아
我等민족 이천만을
덕 닦으면 덕이오고
죄범하면 죄가온다
너뿐인줄 알지마라
너의 동포 오천만은
오늘부터 시작하여
하나 돌씩 보는대로
내손으로 죽이리라

1) 하나님의 성심기도
국티평과 민안락을
.....
륙신세상 잇슬때에
국티평이 데일초타

—달성회당 예수교인 이국가에서

36) (윤치호 일기, 한국사료총서 제19, 국사편찬위원회, 1973, 권 1, 358), 기독교의 찬송가와 개화기 시가, p. 133.

2) 우리나라 흥흥기를
비느이다 하늘님의
문명기화 열년세상
말과 일과 又계후세

—최돈성의 글에서

3) 우리나라 위하라면
하늘님의 기도하야
지혜와 힘을 비려
우리나라 도와보세

—문경호 조주독립가에서

4) 조주독립 하량이면
인민스랑 첫치로다

—김영철 이국가에서

5) 텃디디간 만물중에
사름이 웃듬일세

—이응선 이국가에서

6) 텃디 만물 창조후에
오쥬구역 텃딩이라

.....

(후렴)

깃분날 깃분날
대조선국 독립흔날

—최병현 독립가에서

7) 즐겁도다 즐겁도다
조주독립 즐겁도다

윤태성 이국가에서

성자신손(聖子神孫) 천만년은 우리 황실이요
산고수려 동반도는 우리 본국일세

(후렴)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애국하난 열심의기 북악갓치 높고
충국하난 일편 동해갓치 깊히

이천만인 오죽한맘 나라 사랑하여
사농공상 귀천업시 직분다하세

우리나라 임금 삼천이 도우사
국민동락 만만세에 태평독립하세.

윤치호가 역술한 「찬미가」 10장 애국송

등은 애국사상을 신앙적 이념으로 노래속에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즈쥬독립	항량이면	사랑사랑사랑이야
인민사랑	첫치로다	빅성들은 정부사랑
정부가	잇손후에야	사랑사랑사랑이야
빅성들이	의지하고	정부에는 빅성사랑
빅성들이	잇손후에	상하사랑
정부가	의지되는니	부국강병
도와주세	도와주세	상하의심
우리정부	도와주세	즈쥬독립
사랑하세	사랑하세	정직으로
우리인민	사랑하세	공평으로
너외관민	너나업시	마자히도
인국인민	일심하면	안하여도

(농상공부기스 김철영 외국가)
독립신문, 1986. 4.11

남너노소	인민들은
경축가를	불러보세
우리모도	일심으로
성상폐하	경축하세
충심위군	하느거든
빅성마다	본분일세

김기범 경축가
독립신문 제1권 미호, 1896. 9.17

인천항구 용동 예수교 교회당에서 대군주폐하 탄신일을 축하하기 위해 남너노유가 다 예배당에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김기범이가 지어 부른 것이라 한다. 이 노래를 통해 김기범은 기독교에 대한 신앙과 군주에 대한 충성이 결국 같은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³⁷⁾

37) 조남현, 개화가사, (형성출판사, 서울, 1982), pp. 181~182.

2) 창가의 시형과 찬송가

① 시의 형태면에서

구전으로 불려졌던, 문자로 정착되었던 간에 1896년에 발표된 우리의 노래보다 훨씬 전에 이미 찬송가가 상당한 세력을 잡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것은 전도를 위한 것이요, 외국인 선교사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나 서구적 노래의 효시로 가창하기 위한 것이었다. 독립신문의 개화시 중 한 두 노래를 제외하고는 文節과 文節사이에 한 행 정도의 간격을 두어 행구분이 되어 있다. 이것은 각절의 단위를 표시한 것으로 단순히 이조가사의 축소가 아니라 새로운 식의 分節形式이 시도된 것이다. 그리고 후렴구가 붙기 시작한 것 등 그 영향은 개화시보다 먼저 보급된 찬송가에서 받아들여 前代의 律調가 변형되었고 후에 나온 창가의 전초적 동기가 되었다.³⁸⁾ 그러므로 이 양자간에는 모방적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다.

독립신문에 발표된 애국가류의 성격은 한결같이 古代詩歌의 운율인 4.4조를 기반으로 삼고 있지만 그 형태적 특색을 보니 대개 3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분절양식(分節樣式) 취하고 있다는 특색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대 조선은
즈쥬독립 분명하다

즈쥬독립 되야하면
문명개화 도을시고

이 詩에서와 같이 이 밖의 다른 시들도 몇 수는 그다지 뚜렷하지 않지만 4.4조의 文節이 둘씩 합쳐서 한개의 聯을 구성하고 있다. 이것이 단순한 音譜를 넣기 위한 分節이었던지 작자의 의사를 헤아릴길 없지만 漢詩節句의 起, 承, 轉, 結이 시조등을 통하여 잠재해 있다가 그것이 전통성을 띠고 나타난 것인지도 모르며 또는 4행으로 된 1연이 唱이나 吟속에 있어 고유한 한국 음악의 가락에서 영향을 받은 것일지도 모른다.³⁹⁾ 그러나 개화기 창가의 가사는 대개 당시의 신문을 통해서 발표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작사자의 서명없이 발표되는 것이 통례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작사자의 이름이 밝혀지기도 했다.……

무서명이든 유서명이든 창가가사의 작사자는 전문적인 시인이 아니었다. 누구나 생각나는대로 창가를 작사했고 누구나 작사한 창가가사가 그대로 신문에 게재되고 일반에게 노래로 불리어지고 했던 것이다.

38) 송민호, 한국시가 문학사(한국문학사 대계, 고려대 민족문화사 연구소, 1967), pp. 914~920.
39) 송민호, 기화시의 근대문학적 성격, (고려대 문리과대학 논문집 7, 1969), p. 96.

이런 실정은 창가의 자연발생적인 면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자연발생적인 과정에서 기독교의 찬송가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고 그런 충격에 따라 전통적인 잠재적 울조와 분절양식이 자연스럽게 되살아 나면서 기독교적 근대감과 결합 되었으리라는 데 있다.

김용직씨는 대부분의 창가가 분절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한 작품이 가창되는 경우에 그것을 구성하는 여러 절들은 같은 곡조로 되풀이 되는데 상례라 하고 이때 가창자를 위해서는 악보가 끝나는 단위가 명시될 필요가 있다. 창가에 보이는 분절현상은 여기서 연유된 것이라 보고 있다.

창가를 통해 우리 시에 자리를 잡은 분절현상은 그 후 근대적인 자유시에 의해 발전적으로 계승되었다. 자유시의 형태상 특징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그들이 행과 연 구분을 명시하는 점이다. 하기가 정형시에도 행과 연구분이 이루어진게 통례이다. 그러나 정형시는 원래 울격의 제한이 엄격하다. 따라서 반드시 외형으로 나타나게 행과 연이 명시되지 않아도 그것을 판별할 실마리를 찾아내는 일이 반드시 불가능하지는 않다. 우리 고전시가에 속하는 여러 작품들을 완전에서 찾아보면 그들은 모두가 행과 연의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록되어 있다. 그 까닭은 바로 이런데 있는 것이다.⁴⁰⁾

초기 기독교 찬송가집들 가운데 하나인 찬미가에 실려있는 31편의 찬송가를 보더라도 分節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은 틀림없으나 聯區分의 특징은 다르다.

예를들어 제 1 장은 두연으로 되어있고 제 3 장과 제 8 장은 4 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27편의 愛國歌類를 보면 한편만 제외하고는 모두 4.4조 두 행으로 짝을 이루어 하나의 연을 형성하고 있다. 초기 기독교의 찬송가는 다양한 분절 양식을 따르고 있는데 반해 독립신문에 실려있는 애국가류는 대체로 2行聯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애국가류의 두번째 형태적 특색은 후렴(後歛)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턴디만물 창조후에
오쥬구역 턴딩이다
아시아쥬 동양중에
대조선국 분명하다

(후렴)

독립기초 장구술은
군민상이 데일이라
깃분날 깃분날
대조선국 독립훈날
대조선국 독립훈날

—농상공부쥬스 최병헌 ‘독립가’

40) 김용직, 한국근대시사(새문사, 서울, 1983).

이런 후렴구나 반복구가 자주 나오는 전통적인 시가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애국가류의 후렴성을 찬송가의 영향으로만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것은 정당치 못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⁴¹⁾ 그러나 찬미가 찬양가에서는 이 후렴구는 흔한 것이었다.

더구나 최병헌의 독립가와 찬미가 60장을 비교해 보면 양자 사이 모방적 관련성은 확실해 진다.

쥬 깃분날 하늘님이
나를 그 큰식 삼는 날
일노 크게 깃분소리
턴하 만민 압회하네

(후렴)

깃분날 깃분날
예수 내즈 다 셋신날
빌고 혼방비 혼는 법
예수 붉히 2르켰네
깃분날 깃분날
예수 내죄 셋신날

또한 찬미가 부록에 들어 있는 당시 이화학당 학생작인 찬송시와 비교해 볼 때 그 관련성은 더욱 확실하다.

유태국에 나신 구쥬
동포 형태 알앗스니
하늘님의 은혜시니
엇지아니 감격하리

(후렴)

깃분날 깃분날
구세쥬의 탄일 일세
쥬의 영광 빛쥬스니
일월 보덤 빛 나도다
깃분날 깃분날
구세쥬의 탄일 일세

- 1) 쥬스랑 내 알기논
성서말습 분명히
어린아히 쥬맛터
연약함을 붓드네

41) Mung-Ho Sym, *The Making of Early Modern Korean Poetry*(London, 1980), pp. 55~57.

(후렴)

예수 날스랑 예수 날스랑
예수 날스랑 성서에 말잇소

2) 어렵고 어려우니 우리쥬가 구하네
옷과 밥을 주시고 도흔 것을 다 주네

(후렴)

어렵고 어려우나
우리쥬가 구하네

1) 은 번역문이며 2) 는 白鴻俊이 作詩한 것이다.

애국가류의 세번째 특색은 合歌樣式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아세아에 대조선이
즈쥬독립 분명하다

(후렴)

이야에야 이국홍세
나라위히 죽어보세
분골하고 쇠신토록
충군하고 이국홍세

(합가)

우리정부 돕혀주고
우리군면 도와주세

—니필균 즈쥬독립이국가—

이런 合歌樣式도 찬송가의 영향인 것으로 보이며 그것은 아펜젤러 번역의 “천주님 우리주희”라는 찬송가와 비교해 볼 때 더욱 뚜렷해 진다.

천국님 우리주희 (합가) (알닐누여)
찬송소릭 하여보세 (합가) (알닐누여)
죄인을 구원하샤 (합가) (알닐누여)
십즈무덤 견디셨네 (합가) (알닐누여)
죽호심을 견디심애 (합가) (알닐누여)
우리구원 섬기었네 (합가) (알닐누여)
하늘애 왕이되샤 (합가) (알닐누여)
천스들이 노리하네 (합가) (알닐누여)

이 찬송가와 이필균의 애국가를 비교해 볼 때 우선 4.4조의 字數律이 같을뿐만 아니

라 그 措辭나 合歌樣式도 같다. 이런 합가양식이 찬송가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양자 사이의 형태적 유사성으로 보아 그 영향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② 시의 율격면에서

우선 번역 찬송가의 율격은 김병철씨의 조사에 의하면 8.6조가 40편, 7.7조가 29편, 8.8조가 24편, 6.6조가 22편, 8.7조가 18편, 7.6조가 13편, 4.6조가 5편, 8.5조가 4편, 6.4조가 4편, 11.11조가 3편, 7.5조가 3편, 8.3조 5.5조 4.4조가 각각 2편 등 모두 35종에 달한다고 한다. 이로써 가장 많이 사용된 시형은 8.6조 7.7조 8.8조 6.6조 8.7조 7.6조 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새롭고 다양한 시형은 적어도 4.4조의 가사형식이나 시조형식을 답습한 우리 시가에 새로운 형태적 가능성을 주었으리라는 것을 쉽게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⁴²⁾

그런데 새로 형성된 창가에 대한 편견을 우리는 지녀 왔다. 그것은 창가를 일본 신체시의 수평이동현상으로 처리해온 것이 그것이다.⁴³⁾ 창가의 일부가 일본 신체시와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 구체적인 보기가 되는 것이 <경부철도가>이하 몇몇 7.5조 창가들이다.

우렁타게 토하난 디덕소리에
남대문을 등디고 석나나가서
쌀니부난 바람의 형세갓흐니
날개가던 새라도 못바르겠네

늪은이와 짧은이 석겨안졌고
우리네와 외국인 갓티타스니
내외틴소 다갓티 익히디내니
도고만한 산세상 덜노일헛네

—경부철도가—

한양아 잘잇거라 갓다오리라
압길이 질편하다 水陵十萬里
四千年 넷도음 평양지나니
宏莊할사 鴨鐵江 큰쇠다리여
七百里 達東벌을 바로 돌코서
다다르니 奉天은 옛날 瀋陽城
東福陵 저술밭에 잠긴연기는
二百五十年동안 뭍자쳐로다

42) 김병철, 한국근대시 번역 문학사연구(文學史研究), 을유문화사, 1975, p. 72.
이런 견해가 피력된 예로는 趙芝薰 半世紀의 가요문화사, 송민호, 한국문시가문학사(下).
43) 김열규, 한일근대시의 일반적 考察, 김동욱, 국문학사.
일본창가에 영향으로 6.5조 7.5조 8.5조의 變調로 나타났다고 봄.

南으로 萬里長城 지나들어가
 별관에 큰都會는 北京城이라
 太和殿上 날리는 닷등달이旗
 중화민국 새빛을 불것이로다<世界一週歌>

이들 작품을 통해 드러나는 바와같이 제 2기 창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外形律이다. 그것이 7.5조를 한 행으로 한 자수율이다. 우리 시가에서 7.5조는 새로운 형태다. 그러니까 제 2기 창가에 이르러 우리詩에 새로운 율격이 형성된 셈이다.

이와같이 제 2기 창가의 형태는 그 일부가 일본측의 같은 유형에 속하는 작품에 대비된다. 정작 일본측에서도 明治年代 나온 작품 가운데 몇편의 창가들이 있다. 그런데 그 형태는 대개 7.5조로 한 행으로 한 외형율에 의거하고 있다.

조운재씨는 4.4조가 降熙年間에 들어와서 日本詩歌의 7.5조를 모방하였던지는 몰라도 4.4조는 다분히 깨어지고 그대신 6.5조, 7.5조, 8.5조가 빈번히 쓰이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가사는 주로 六堂이 많이 썼다고 한다.⁴⁴⁾

「가 을 뜻」
 囊한 버들 맑은 물 맑은 시내에
 배가 부른 헛돛달아 가난저배야
 世上是非 던져두고 어니곳으로
 너혼자만 무엇실고 도망하나나

나의배에 실은것은 다른것 없어
 西面에서 얻어온바 새소식이니
 杜門洞속 캄캄한데 코를부시난
 山林學者 양반들께 전하려하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 우선 모든 창가가 7.5조의 자수율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기억되어야 한다. 창가가운데는 8.6조를 지닌것이 있고 또 더러는 6.4조 6.5조가 주축이 된 것도 보인다. 다음은 외배로 서명된 이광수의 <새아이> 일부이다.

내 눈이 밝고나 엑스빛갓다
 하늘을세울코 쌍을 들추어
 온가지 眞理를 캐고 말란다
 네가 새아이로구나

44) 조운재, 국문학사 개설, 민중서관, 서울, 1965, pp. 203~204.

네손이 슬겁고 힘도 크도다
 불길도 만지고 돌도 줌을너
 새롭은 누리를 지러는구나
 네가 새아이로구나.

여기 나타나는 바와 같이 창가의 자수율은 단선적인 게 아니다. 그럼에도 7.5조 창가만을 택해서 그것과 일본 신체시를 대비시킨 결과로 생각되는 모작설은 재검토 되어야겠다.

크게 볼 때 창가가 우리 시가의 한 양식으로 터전을 마련한 것은 서구적 충격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밝히면 창가의 형성 전개에 결정적인 구실을 한 것은 기독교다. 기독교 가운데도 개신교가 이 방면에 끼친 영향은 결정적이다. 이런 사실은 외적 증거를 통해서도 그 입증이 손쉽게 이루어진다. 우선 이 무렵의 창가는 그 제작자와 가창자들이 개신교 신자들이었다.

1) 높으신 상주님
 자비론 상주님
 긍휼히 보소서
 이나라 이땅을
 지켜 주옵시고
 오 주여 이나라
 보우 하소서.

2) 우리의 대군주 폐하
 만세 만세로다
 만만세로다
 복되신 오늘날
 은혜를 내리사
 만수 무강케
 하여 주소서

3) 상주의 권승으로
 우리의 대군주 폐하
 등극 하셨네
 이나라 이땅은
 영세불멸하겠네
 대군주 폐하여
 만만세로다

4) 상주님 은혜로
오주여 이나라
독립하셨네
우리들 백성들은
상하반상(上下班常) 구별없이
오주여 상주님
기도 하겠네

5) 홀로 한 분이신
만왕의 왕이여
찬미 받으소서
상주님 경배하는
나라와 경배하는
나라와 백성들
국태민안 부귀영화
틀림없이 받겠네

이 노래는 1896. 7. 25일 고종 황제의 탄신을 축하하기 위하여 부른 “황제 탄신 축하”이다. 이 창가의 주조는 3.3조이지만 여러 곳에서 變調가 나타난다.

‘황제 탄신 축하’이외에 찬송가조의 창가로 된 것은 1896. 11월 21일 독립문 정초식을 거행할때 배재학당의 학생들이 부른 愛國歌였다.

1) 성조신손 오백년은 우리 황실이요
산고슈려 동반도는 우리 본국일세

후 령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후세

2) 이국후는 렬심의지 북악又치 높고
충군후는 일편단심 동회又치 김허

3) 천만인 오직 흠모을 나라 사랑하샤
스릉공상 귀천업시직분만 다하세

4) 우리나라 우리황대 광턴이 도으샤
국민공락 만만세에 태평독립후세

이 노래의 시형 8.6조로 되어 있는데 이 8.6조는 영시의 민요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률로서 음수행이 8음절 우수행이 6음절을 갖는 약강조(Iambic metre)의 시형

이다. 1906년 윤치호가 개성에서 세운 한영서원에서 매일 아침 불렀다는 애국가도 8.6조이고 普中親睦會報 第一號에 실려있는 金仁滉 작사 작곡으로 된 애국가도 8.6조로서 모두 Auld Lang Syne에 맞춰 불렀다고 한다. 송민호씨는 이런 애국가류에 나타나는 8.6조를 이조시대의 전통율조인 4.4조의 변형으로 보고 있다.

“시기적으로 독립문 정초식을 행한 건양원년 11월은 독립신문에 애국가도 한물가서 중단될 무렵으로 8.6조의 새로운 형식이 나타난 것은 시기 繼起관계로 보아 새로운 시형식의 전환기가 될 수 있다. 또 한편 8.6조는 7.5조보다 전시대의 전통율조인 4.4조의 새로운 전개가 8.6조의 형식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8.6조는 4자를 기본자수 율로 본다면 2자가 탈락하나 첨가된 형태로 생각할 수 있는데 가사형식의 4.4조 연속은 유장한 리듬을 느끼기는 하나 단조로와 격동하는 근대기의 율조로서는 합당하지 않다. 이런 근대적 감각에서 4.4조를 1귀로 보고 율귀가 2자가 탈락된 것은 율조를 조급하게 만들어 음곡상의 매듭을 짓게한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그러므로 8.6조는 전통율조인 4.4조의 계승이요 7.5조 같이 일본에서 수입된 것이 아니라는 견해가 성립된다.”⁴⁵⁾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김병철 교수의 견해가 타당한것 같다. 그는 이 8.6조라는 시형은 한국의 전통적 시형인 4.4조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영시의 민요⁴⁶⁾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Common metre 즉 기수행이 8음절, 우수행이 6음절을 갖는 弱強調의 일정한 형식을 가진 시형으로 8.6조의 6은 2가 탈락된 것이 아니고 본시부터 하나의 시형으로서 존재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4.4조의 계승이 아니라 영국에서 수입된 외래품이며 또한 8.8조 못지않게 유창하고 장중한 곡으로 Old version이라고 하는 詩篇전체의 최초의 韻文英譯에는 약1/3이상 이시형으로 되어 있어 그후의 영어 찬송가도 그것에 따라서 작사한 것이 많아졌으며 19C말 한국 찬송가에도 이 시형이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병철 교수에 따르면 8.8조는 4.4조의 변태가 아니므로 구 시가의 율조인 4.4조의 새로운 전개가 8.6조의 형식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런 시형은 찬송가의 영향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찬송가는 이처럼 한국시가에 새로운 형태적 가능성과 창가 양식을 발생케 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적 율조인 4.4조가 주는 그 단조로운 서정을 변형시키려는 의지를 주었던 것이다.⁴⁷⁾

45) 송민호, “개화기 시가사상의 가창”, 아세아연구소(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66), p. 49.
46) 김병철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작가가 확실한 찬송가 140편을 국적별로 보면 영국이 98(70%), 미국 39(27.9%), 독일 2, 일본 1 따라서 19세기말 한국에 이식된 찬송시는 대부분 영미 양국의 것들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번역 찬송가의 시형을 보면 8.6조 : 40편, 7.7조 : 29, 8.8조 : 24, 6.6조 : 22, 8.7조 : 18, 7.6조 : 13, 4.6조 : 5, 8.5조 : 4, 6.4조 : 4, 11.11 : 3, 7.5조 : 3, 8.3, 5.5, 4.4 각 2편 모두 35종에 달한다고 한다. 이로써 가장 많이 사용된 시형은 8.6조, 7.7조, 8.8조, 6.6조, 8.7조, 7.6조 등임을 알 수 있다.
47) 조신권, 한국문학과 기독교(연세대 출판부, 1983), p. 102.

3) 신체시와 찬송가

찬송가 번역은 최대한 원전의 뜻을 살리는 입장에서 시도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찬송가는 모두가 외국인 교역자의 손을 통해 이루어졌다. 물론 이들 교역자는 상당한 한국어 구사 능력의 보유자였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한 사람들은 아니었다. 본래 律文의 번역은 그 말의 음영과 감각, 가락까지 정통한 사람이 아니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번역이 지닌 이러한 여건 때문에 초기 찬송가의 한국어판은 매우 독특한 것이 되었다. 우선 거기에는 당시 우리 주변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새 조어들이 적지않게 나타났다. 그리고 원전에 얽매이면서 한국어를 찾아내야 했기 때문에 律格에도 파격적인게 나타났다. 다음은 <Jesus loves me>의 한국어 번역을 찬미가 찬양가에서 옮겨 본다.

1) 주 사랑 내알기

성서말씀 분명히
어린아희 주맛터
연약함을 부드네

(후렴)

예수 날사랑 예수 날사랑
예수 날사랑 성서에 말잇소

2) 예수 나를 사랑하오

성경에 말씀일세
어린아희 입자요
예수가 피로샳네

(후렴)

예수 날사랑하오
성경 말씀일세

여기서 우리는 미처 익숙하지 못한 국어와 만난다. 1), 2)의 3, 4 행을 원전에서 찾아보면 그것은 “Little ones to him belong They are week but he is Strong”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연약함 부드네” “예수가 피로 샳네”한 것은 모두가 제 뜻과 거리가 있는 번역이다. 또한 위의 두 번역은 얼핏 보면 그 울격이 우리 주변의 것과 별차가 없는 듯 생각됨직도 하다. 그러나, 이것으로 이들 찬송가가 우리 주변의 재래 운율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본다면 그것은 그릇된 생각이다. 1)에서 2 행과 4 행은 4.3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2)는 오히려 그 반대의 자수율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번역 찬송가가 나오기 이전 우리 주변에서 이와같은 울격의 교체현상이 그것도 같은 유형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예는 일찍 없었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 찬송가가 한국시가의 울조에 끼칠 어떤 가능성을 예감하게 되는 것이다. 그와 함께 4.4조를 중심으로 한 우리시가의 재래 울격이 뒤흔들렸다.

원조아담 범명후로 텃당문이 다치고고
만터즈손 벌을넘어 디옥문이 열녇더니
크시도다 엄위하심 거두시고
주의인즈 구세쥬물 허홍섯너
더디도다 더디도다 실망말고 기드리소
스천년이 더디도다 덩헌신혜 오시리니
장홍도다 성조들과 셉지자는
신덕이여 굿이믿어 기드렛니

경향잡지 제
'성탄찬양가'

이 노래는 1911년 <경향잡지>에 발표된 '성탄 찬양가'의 인데 위에서 본바 같이 4.4조를 그대로 답습하되 4음보격이 파괴되어 있다. 곧 '크시도다' '주의인즈' 다음에 그 음보가 결여되어 있다. 이것은 마치 영시에서 운율의 변화를 주기 위하여 어떠한 詩脚(foot)이 보통이 다른 형보다 1음절을 결여시키는 Catalexis와 같이 변화를 주어 운율적 효과와 시각적 효과를 동시에 거두려는 시도로 보인다.⁴⁸⁾

그리고 이것은 보다 본격적인 우리 근대시의 전개를 위해 특기할 일이 있다. 일례를 들면 1906년 김정신 작시인 이화(梨花)의 校歌인데

참 영화스런 학당은
이화 학당일세
사면에서 온 수백명 학생
다 지금은 노래하네
그 학생 노래지어
날마다 화답하네
이 이름 널리 전파하기 위해
다 지금 노래하세

또 같은 학당에서 노래 불렀다는 <百合花>는

이 곳으로 나오라
백합화 만발한 곳에
순결하고 어여쁜 이화꽃이 피었다

48) 한글성서와 겨레문화(그리스도교와 겨레문화 연구회편, 기독교문사, 1985).

회기는 눈 같고
정결하기 백옥과 같다
아! 아! 아름답고도 곱다
영원무궁
다 지금 노래하세

윗 시는 치졸하기는 하나 종래식 음수율에 전혀 맞추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20년대 남궁억이 지은 찬송가 가사를 보면 한결 시적인 감각이 돋보인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에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나 대답을 할까

(후렴)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해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 갈때니
사방에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결국 찬송가가 본격적인 시의 모습을 띠고 나타난 것은 1920년대지만 그 시작은 찬미가의 가사에서부터 였다고 볼 때 찬송시의 창작적 가치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V. 결 론

한국의 신문학은 한국의 근대화가 성립되기 시작한 갑오경장을 기점으로 하여 개화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근대화에 기독교가 끼친 영향은 여러 방면에서 논할 수 있는바 신문학을 태동케 한 요인을 정리해 보면 대개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는, 갑오경장과 동시에 싹트기 시작한 신문학 운동의 가장 현저한 특징이 한글에 대한 재인식과 그로 말미암은 언문일치의 문장을 개척하였다는 점이다. 유길준을 그 선각자로 꼽는 소이도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가 지은 서유견문이 비록 鮮漢文化로 쓰여지기는 했으나 이것은 근세 한국 문학사에 있어서 일찌기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것으로 언문일치 문장의 효시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것은 성서의 우리말 번역은 그 보다도 훨씬 선행되었다는 점이다.

최초로 번역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1882년(고종19년)에 간행되었고 그 개역과 함께 마태복음 마가복음 신약이 그 다음해인 1883년에 간행되었고 이어서 1887년에는 John Ross박사역으로 된 신약전서(원명: 예수성경전서)가 간행되어 우리나라에 유입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1885년에 내한한 초대 선교사 H.G. Underwood와 H.G. Apenzeller에 의해서 본격적인 번역이 시작되어 1887년에 마가복음의 간행을 보게 되었는데 이상과 같은 모든 성서의 우리말 번역은 전기한 유길준의 서유견문이 간행된 을미년(1895)보다도 여러해 앞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표기문자에 있어서도 유길준이 일찌기 제시한 바 있는 선한문체 사용의 필요성을 더 철저한 형태로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즉 서유견문과 앞서 성서를 번역한 사람들은 이미 유길준이 내세운 언문일치문장 사용의 이유중 가장 중요한 조항인 일반 민중에게 주도히 소개하여 써 민지(民智)의 계발을 도모하려면 무엇보다 그 문체가 평이하야 함이요 라는 말을 자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그 때의 우리말 성서는 비록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대중적인 구어체라는 점에서는 유길준의 서유견문보다 한결 선구적인 구실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한글의 표현적 가능성과 그 효능에 대한 최초의 활용이며 또한 최초의 성과이기도 했다. 한국에 있어서 선교가 급속도로 성공하기에 이른 중대한 비결의 하나는 실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또한 그러한 성과는 언문일치로서 특징지어지는 신문학의 발전에 큰 공헌이기도 하다.

이에 대하여 이광수는 “야소교회가 조선에 한지 우금 30년이요 야소교회는 실로 암흑하였던 조선에 신문명의 서광을 전하여 준 최초의 은인이며 겸하여 최대의 은인”이라고 말하고 “한글도 글이라는 생각을 조선인에게 준 것은 실로 야소교회이다. 귀중한 신구약과 찬송가가 한글로 번역되며 이에 비로소 한글의 권위가 생기고 또 보급된 것에는 차일에 중국 경전의 언해가 있었으나 그것은 보급도 아니되었을 뿐더러 번역이라 하지 못하리만큼 졸렬하였소. 소위 토를 달았을 뿐이었소. 그러나 성경의 번역은 물론 아직 불완전하지만 순조선말이라 할 수 있소. 아마 조선글과 조선말이 진정한 의미로 고상한 사상을 담는 그릇이 됨은 성경번역이 시초일 것이요. 만일 후일에 조선문학이

건설된다 하면 그 문학사의 제 1 항에는 친구약의 번역이 기록될 것이외다.”⁴⁹⁾라고 밝히고 있다.

두째로는, 우리의 신문학은 과거에 대한 반동과 극복으로 되어진 자연발생적 진출이 아니고 밖에서 들어온 근대문학적 형식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더 주세력으로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백철은 “우리나라에 근대적 신문학이 생성한 처음 과정은 그 창작적 작품행동이 오기 전에 먼저 외국 작품을 그대로 옮겨보는 행동이 선행한 순서로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즉 신문학이 처음으로 올 때 구체적 작품양식은 시와 소설의 두 가지 면에서 고찰하게 되는데 이 시와 소설의 두 가지가 다 처음에는 외국의 것을 번역하는 형식으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와 소설의 처음 형태를 살펴보면 시는 창가의 형식으로 소설은 신소설이란 이름으로 등장하였다고 보겠으며 그 창가와 신소설이 처음부터 우리 창의로 된 것이 아니고 외국의 것을 먼저 번역을 해서 시험해 보는 과정이 성행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광범위한 의미에서 <성경>과 <찬송가>도 유럽의 문학이라고 본다면 <성경>과 <찬송가>가 처음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 1882년이라 하지만 늦게 잡아도 배재학당, 이화학당의 校史등의 기록으로 보더라도 벌써 1887년 무렵에 되어진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그 밖에도 직접 문학적 작품으로 Bunyan의 유명한 천로편력이 우리말로 되어 퍼진 것이 1895년으로 되어 있다.”⁵⁰⁾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지 한국 근대문학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개화기 시가에 미친 영향이 절대적이라고는 할 수 없어도 그 영향을 부정할 수는 없다.

세째로는, 기독교의 정신, 즉 기독교 사상을 들 수 있다. 개화기 시가의 새로운 형태적 가능성과 중심적 내용을 구성하는 개화사상이나 독립정신이 기독교와 접촉하면서 자유정신, 계몽사상, 신교육, 미신타파와 인습비판 등을 수용하게 되었다.

이런 개화사상은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받아들이려는 시대적인 필요성에서 발로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런 개혁의지에 불을 당긴 것은 서구적 충격이었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서구의 신문물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의 역할이 컸음은 부정할 수 없는 만큼 그런 기독교적인 의식이 개화기 문학에 용해되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독교의 중심적인 가치체계를 이루고 있는 생명, 사랑, 정의, 자유, 평등, 진리 같은 개념들이 한국의 근대적 이념을 형성하면서 한국 근대문학의 질적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고 그런 변화된 문학적 성격의 단면을 작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다.

49) 이광수, 야소교의 조선에 준 은혜, 청춘 9, 1917.

50) 백 철, 신문학사조사, pp. 29~31.

이와같이 생각해 볼때 기독교는 근대문학 배경 형성의 정신적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기독교가 개화기 문학을 태동케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표현, 형식, 내용면에 있어서 끼친 영향은 절대로 과소 평가할 수 없으며 또한 우리나라 현대문학의 선구자였던 최남선, 이광수에게 그 선구자적인 역할을 담당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본 논고에서는 개화기 문학중 소설부문에는 고찰하지 못하였으므로 본 논고의 한계성은 있겠으나 이 부문에서도 차후의 연구가 중요시 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국 내 서】

- 권영민, 한국 근대문학과 시대정신, 서울: 문예출판사, 1983.
 기독교문학연구회, 기독교문학, 서울: 형설출판사, 1978.
 기독교와 문화연구모임, 지성과 신앙, 서울: 성광문화사, 1982.
 김광용편, 원본 한국 근대소설의 이해(1906~1930), 서울: 민음사, 1983.
 김양선, 한국 기독교사 연구, 서울: 기독교문사, 1971.
 김열규, 신동욱편, 신문학과 시대의식, 서울: 새문사, 1981.
 김영덕, 이화여자대학교 80주년 기념논문집, 서울: 이화여대 출판부, 1966.
 김우규, 성서가 한국 현대소설에 미친 영향, 서울: 대한 성서공회, 1960.
 김우중, 한국 근대문학 사조사, 서울: 한국방송 사업단, 1982.
 김용직, 한국 근대시사, 서울: 새문사, 1982.
 _____, 현대 한국 작가연구, 서울: 민음사, 1976.
 김종균편, 한국 근대소설 문학론.
 김주연편, 현대문학과 기독교, 서울: 태광문화사, 1984.
 김희보, 한국문학과 기독교, 서울: 현대사상사, 1979.
 그리스도교와 겨레문화 연구회, 한글성서와 겨레문화, 서울: 기독교문사, 1985.
 박종덕, 춘원문학 1-15, 서울: 도서출판 성한, 1985.
 백 철, 신문학사조사, 서울: 민중서관, 1950.
 _____, 신문학사조사, 서울: 신구문화사, 1961.
 서남춘, 한국 문학개설, 서울: 태학사, 1981.
 성신여자대학교 인구과학연구소편, 한국 근대예술의 성립과 그 발전, 서울: 성심여자 대학교 출판부, 1984.
 양왕용, 한국 근대시 연구, 서울: 삼영사, 1982.
 이만열, 한말 기독교와 민족운동, 서울: 평민사, 1980.
 이재선, 김학동, 박종철 공저, 개화기 문학론, 서울: 형설출판사, 1982.
 이청원, 한국 민족문학사론, 서울: 원광대학교 출판부, 1981.
 장일선, 회브리설화의 문학적 이해,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85.
 정한모, 최남선 작품집, 서울: 형설출판사, 1982.
 정한숙, 한국문학의 주변,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5.
 조남현, 개화가사, 서울: 형설출판사, 1982.
 정한숙, 한국문학의 주변,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5.
 조남현, 개화가사, 서울: 형설출판사, 1982.
 조신권, 한국문학과 기독교,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3.

- _____, 성서문학의 이해,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8.
 조운재, 국문학사 개설, 서울: 동국문화사, 1965.
 최 준, 성서가 한국신문에 미친 영향, 서울: 홍익대학 출판부,
 하동호편, 한국 근대문학 산고, 서울: 백록출판사, 1976.
 한국 기독교 문화연구소편, 한국의 근대화와 기독교, 서울: 숭전대학교 출판부, 1983.
 홍경균, 한국 근대소설작가 의식연구, 서울: 형설출판사, 1984.
 고려대학교 민족문학연구편, 현대문학사 대개, 1-8, 1981.
 문덕수편, 세계문학 대사전(I-II), 서울: 성문각, 1975.

【역 서】

- 글릭스버어그, 문학과 종교, (최중수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1.
 J. Isaacs, 현대문학의 탐구, (이경식 편), 서울: 대운당, 1979.
 스텐리로맨호파, 현대문학의 정신문제, (김영수 역), 서울: 한국 기독교 문학연구사 출판부, 1979.

【양 서】

- M.H. Abrams. The Norton Anthologr of English Litorature Vol. I -II, W.W Norton & Compony INC. New York.
 B.B. Arawick. The world Litorature Vol. I -II, Burnes & noble College outline series. Canada.